



정읍 황토현농협, 농가주부모임 사랑의 김치 나눔

정읍 황토현농협(조합장 유형기)이 최근 김장철을 맞아 관내 특거노인, 취약계층 88세대를 대상으로 직접담은 사랑의 김장김치 1000포기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황토현농협과 농가주부모임이 사용한 배추는 황토현농협이 직접 재배한 배추육묘를 활용하여 농가주부모임 손님 회장이 정성껏 길러 수확해 무상으로 제공하여 그 의미가 더 깊다.

유형기 조합장은 "특히 올해 배추와 소금가격이 폭등하여 김장 비용이 늘어난 만큼 이번 나눔행사가 의미 있었던 것 같다. 회원의 정성을 모아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순순임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김치 나눔행사이지만 그 어느 김치보다 좋은 재료들과 정성으로 담았으니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추운겨울 건강히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수도권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마무리

정읍시와 수도권 교류도시 청소년에게 역사·문화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3년 정읍시·수도권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이 지난 17일 서울시 성북구 교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올해는 서울시 강동·강서·성북구 청소년 150명과 정읍 청소년 150명이 참여했다.

수도권 청소년들은 무성서원, 동학농민혁명유적지 등의 역사체험과 시립농악단공연 관람, 천사하이로즈 체험활동, 내장사탐방원 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의 문화체험을 통해 정읍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느끼고 체험했다.

정읍 청소년들은 암사동 유적, 상일리 만세광장,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롯데월드, 한강 크루즈, 청소년 연극 관람 등의 활동을 통해 추억이 될 경험을 얻었다.

백지원 인재양성과장은 "2024년에도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호·자매 도시의 역사·문화탐방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군 드림스타트, 가족 캠프 진행 뜨거운 호응

임실군이 지난 17일과 18일(1박2일)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에서 드림스타트 30가구 110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밤의 별빛 감상이라는 주제로 가족 캠프를 운영, 가족들과 함께 소통하고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하여 드림스타트 가족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얼굴엔 기대에 찬 모습이었으며 첫 프로그램으로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자녀와의 대화법을 주제로 전문 강사를 모시고 부모교육을 실시했고 밤에는 온 가족이 강당에 모여 레크리에이션 실내 캠프 피어어를 통해 가족 간 친밀감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가을운동회 레크리에이션 도전골든벨 게임을 통해 가족들이 하나 되어 응원하고, 춤추고, 함께 뛰고 웃는 활동 시간으로 가족 모두 즐거운 시간과 행복한 추억을 쌓았다.

행사에 참여한 정모씨는 "우리 가족이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가족 캠프를 통해 가족 간 소중한 추억이 우리 아동들이 성장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굳은 우리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도내 청년단체 성장 가능성 입증

전북 청년공동체, 3년 연속 행안부장관상 수상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20일 행안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3년 청년공동체 최종 성과공유회'에서 전주 '막동마순협동조합'이 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돼 행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170개 팀 중 각 시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추천된 16개 팀이 참석해 그간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해 우수 청년공동체를 선정했다.

전북에서는 '21년 무주 '산골농민', '22년 장수 '장수리넵쿠'에 이어 올해는 완주 '막동마순협동조합'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며 3년연속 행안부 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막동마순협동조합'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주를 개발해 타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생활 인구로 확장시키는 등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공동체로서의 성장



을 위해 자체 청년 네트워크 동아리 '고봉밥'을 조직하는 등 프로그램을 통해 연결된 청년들과 지역이 지속적으로 유대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전은경 '막동마순협동조합' 대표는 "각지 청년들이 지역에서 함께 자립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서로 성장하고,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청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상 전북도 청년정책과장은 "'막동마순협동조합'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한 축이자 동력인 청년들이 전북의 미래 활력 주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해 청년들의 지역활동 기반을 돕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북에서는 15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김남직 수도 대표, 전북대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등문인 주식회사 수도 김남직 대표(토목공학과 90학번)가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발전기금재단은 지난 17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남직 대표의 발전기금은 대학 경쟁력 향상 기금으로 지정돼 대학발전과 토목공학과 후배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 대표는 "금전 문제로 꿈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후배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전북대인으로서 자부심을 품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은, 순창군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기탁

전은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 20일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300만원 상당의 보건위생용품세트 100박스를 순창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은은행 김영민 부행장 등 관계자가 직접 참석했으며, 보건위생용품은 총 6종으로 관내 여성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은은행 김영민 부행장은 "관내 여성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별에게 보내는 선물' 사업을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영일 순창군수는 "따뜻한 복지 나눔에 앞장서 준 전은은행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봉서초 설립자 장학회, 모교에 장학금 기탁

봉서초 설립자 장학회(장학회장 이건호)에서 지난 16일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건호 장학회장은 "봉서초등학교는 70년 전 초등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공 한 말, 쌀 한 되를 모아 벽돌을 직접 붙여 설립한 학교"라면서 "1990년대 제3공단과 완주공업단지 조성으로 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주민들이 나서 지켜낼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남다른 열망과 애정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 봉서초등학교는 1937년 둔산 간이학교로 시작돼 1943년 봉서국민학교로 승격, 현재 47학급에 학생 수가 1,054명이나 되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학교중 하나로 성장했다.

정금숙 교장은 "10년간 학생 교육을 위해 누적된 장학금이 500만 원이고, 수혜 학생도 45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정읍경찰, 겨울철 대설 대비 교통안전대책 실시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교통안전대책반을 편성하고 상습 결빙길 폭설 취약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현장점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협업하여 진행되는 이번 사전 점검 대상은 △제설제 보관상태와 제설 장비 관리 상태 △자주 제설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관리 △제설함, 제설 도구, 관리부서와 연락처 등이다.

또한 제설함 내 영화갑옷, 모래주머니, 제설 삽 등의 제설 품목 등 비저장상태와 청소 여부를 살펴 눈이 내리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설제 관리 현황 제설 차량 등 제설 장비 관리 현황 등을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발표시 가능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폭설로 인한 교통불편,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누구나 안심하고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비전대 미용천사들, 전주보훈요양원서 봉사활동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 유학생으로 구성된 미용재능기부 봉사동아리 미용천사들이 21일 전주보훈요양원에서 재능기부봉사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날 봉사에는 미용건강과 미안바, 베트남 유학생 및 산업체 겸업교원, 지도 교수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 두 번째 진행된 봉사활동은 국가 유공자 및 가족들 중심 장기 요양 중이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헤어커트 및 핸드드마지, 네일아트 등을 통해 어르신들께 행복을 선사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비전대학교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력을 통한 미용재능기부활동은 2002년 학과 개설 이래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대표 생문재(미안바, 2년)는 "한국에서 유학생활 하는동안 많은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내 지내고 있는데, 오늘처럼 우리도 잘 할 수 있는 미용봉사활동을 통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지도를 맡고 있는 이효숙 교수(미용건강과)는 "미용전공 유학생들이 대학교육 기간 동안 본인의 재능을 살려 미용 실무를 익히고 미용전문가로 성장하게 돕는 것이 기본"이라며 "자신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



들어 가는데 동참하는 행복한 체험을 통해 이들이 본국에 돌아가서도 재능기부 봉사활동 문화를 확대시키는 멋진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백산중·고 이귀식 총동창회장, 부안군에 고향사랑기부

부안군 백산면 백산중·고등학교 이귀식 총동창회장이 고향발전을 위해 지난 17일 부안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귀식 백산 중·고 총동창회장은 강구조물 공사 철골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건설업종인 (주)중진공업개발 대표로 지난 2019년부터 근농장학금 300만원, 2021년에는 500만 원을 기탁했으며, 부안군 근농안정육성재단의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매월 꾸준히 지원하며 고향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이귀식 회장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부안의 모든 이웃이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서로 상생하는 제도인 만큼 더 많은 분이 기부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고향을 사랑하는 이귀식 회장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며 "보내주시 기부금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구환경을 지키는데 소중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자봉센터, 건강기능식품 전달식

남원시자봉센터는 21일 남원시자봉센터 교육실에서 남원73회(회장 성기수)와 훈민정음 기념사업회(부총재 박남숙)로부터 75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기탁받아 전달식을 가졌다.

물품은 국내산 흑염소산역 추출물등 지역 내 취약계층 영양지원을 위해 남원73회와 훈민정음기념사업회의 사회공헌활동으로 마련되어 관내 10여개 기관에 배부되었다.

한편 이은주 시민소통실장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삶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신 남원73회와 훈민정음 기념사업회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와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단체품을 받을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